조계종, 출가 전 이력으로 소임 제한 논란

종헌특위 성안 후 내부 찬반 일어
"삼보정재 보호"…다수 소임 제한
재적승 10분의 1이 '역차별' 예상
선우회 "공동체 근간 훼손" 반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이 결혼 등 출가 전 이력을 기준으로 종단 주요 소임을 제한하는 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종단 내부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스님들이 출가 전 이력에 따라 각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종법이 개정되면 제약을 받는 스님이 재적승의 10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는 5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승려 사정에 따른 종단 소임 구분' 종법 개정안을 성안했다. 개정안은 6월 10일 개원하는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승려 사정에 따른 종단 소임 구분'은 종단의 전통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삼보정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한다. 출가 전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으로 법률적으로 독신이지만 민법에서 상속권이 인정되면서 재산 분쟁이 종종 벌어지고 삼보정재가 유출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종헌' 제9조에 따르면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여야 한다. 다만 대처승(통합종단 출범시 귀의한 자에 한함)의 기득권은 인정하되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단신) 상주하며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자 △가족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할 자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아니할 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하며 기타는 그 자격에 따라 포교사 및 주지서리에 등용할 수 있다.

'승려법' 제34조6(분한심사)는 조계종 승려의 분한심사 사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사정 갑'의 경우 청정 독신 출가자, '사정 을'은 출가 전 이혼자로 무자녀 출가자, '사정 병'은 출가 전 이혼자로 가족부양책임이 일체 없는 자 또는 비구·비구니로서 환계한 후 재수계한 자, '사정 정'은 '종헌'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기득권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갑'은 종단의 모든 소임을 수임할 수 있고 '을'은 종정, 원로의장, 전계대화상,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및 종헌종법 상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소임을 수임할 수 있다. '병'과 '정'은 중앙(교구)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선출직 종무원, 공찰말사 6등급 이상 주지, 창건주 권리승계 등이 제한된다.

이날 특위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선거법, 종무원법, 원로회의법, 총림법, 산중총회법 등 5개 종법 개정안을 성안했다. '을'은 '갑'과 동등하게 제한을 두지 않고, '병'과 '정'은 주요 소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헌특위 회의에서도 몇몇 스님들은 "최근 늦은 나이에 출가하며 결혼 이력이 있는 출가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출가 이전 이력으로 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중앙종회 종책모임 선우회(회장 성로 스님)는 5월 21일 '승가공동체 근간 훼손하는 종법 개정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우회는 성명서에서 "출가 전 이력에 따른 차별은 수행자에게 낙인을 찍는 일"이라며 "출가 전 이력의 소급 적용은 평등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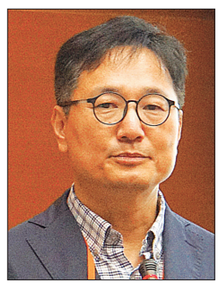
이들은 삼보정재 보호는 필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삼보정재가 속가 가족에게 유출되는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그 해법이 스님의 과거 이력 통제와 소임 제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들은 "재산 유출 문제는 사찰 회계의 공공성 강화와 상속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수행자에 대한 차별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 구성원의 합의 없는 개정은 분열을 초래한다고 강조한 이들은 △승려사정에 따른 소임 제한 법안의 입법 추진 즉각 중단 △불교 근본 가르침에 어긋나는 출가자 차별 조항 철폐 △공청회 등 공개적 절차 통한 종단 구성원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출가자의 삶은 과거를 끊고, 지금 여기에서의 청정한 행으로 자신과 사회를 구제하려는 숭고한 발심에 근거한다"면서 "그 원력을 제도적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불교의 미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위에서만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자살률 급증…공교육서 마음챙김 훈련 절실"

미래본부, 5월 18일 선명상 세미나
"선명상 활용한 1차 예방 중요"



서완석 영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가 진료 중 만난 학생들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들이 자주 하는 생각과 사용하는 말로 '지친다'를 꼽았다. 학교정신건강의학회장이기도 한 서완석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음챙김 치료와 함께 선명상 교육 반영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5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초·중등 선명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선명상, 미래 교육을 깨우다'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동국대WISE 아동인성교육연구소가 함께했다.

서완석 교수는 이날 '한국형 사회정서교육개발을 통해 본 공교육에서의 선명상 의미' 발제에서 학생마음건강 교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마음챙김 치료와 선명상 교육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1월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급별로 개발,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능력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근거법률 마련 구축에 나섰다.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 초중고교생용 '정신건강 위기선별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학생정신건강지원 전문기관 및 치유기관에 연계해 적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키로 한 것.

서 교수는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상위권인 현실에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에서 마음건강을 위해 마음챙김훈련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기 인식과 관리가 주요한 시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 14%가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청소년 진료인원도 65.5%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서 교수는 전 세계적인 정서기능함양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3단계 예방 과정을 안내했다. 그에 따르면 1차 예방은 선명상을 포함한 마음챙김과 사회정서교육, 2차 예방은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위기개입서비스 제공, 3차 예방으로 사후 개입과 1~2차 예방으로 나뉜다. 선명상과 마음챙김을 활용한 1차 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서 교수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미래본부는 사찰 법회 등 종단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명상 영상 콘텐츠를 공개했다. 영상 콘텐츠는 선명상 공식 홈페이지(www.seonmeditation.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은호 기자

"수행자 위의 갖춰 포교 전법"

5월 19일, 직할교구 포살법회
비구 85명·비구니 134명 동참
진우 스님 "분별심 내지 말 것"



불기 2569년 하안거 정진이 5월 12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사찰들로 구성된 조계종 직할교구의 하안거 첫 포살법회가 봉행됐다.〈사진〉

조계종 직할교구는 5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직할교구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포살법회의 법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단에 올라 〈범망경보살계포살본〉 봉독으로 십중계와 48경계를 설하며 계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참법문에서 〈신심명〉의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 단막증애 통연명백(但莫憎愛 洞然明白)'을 언급하며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결코 어려운 것이 없으니 이를 화두로 삼아 보고, 행함을 멈추지 말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삶은 항상 이것과 저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삼독이 있으면 인과법에 의해 과보를 받게 된다"면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다면 똑같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보려면 지금 자기 모습을 보고 과거를 보라 했다"며 "옳고 그르다 좋다 싫다 하는 감정은 결국 과보가 돼 돌아온다.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 즉,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출 것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위의 갖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교와 전법"이라며 "보살의 행을 따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라고 강조했다.

포살법회에는 비구스님 85명, 비구니스님 134명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전국 승려·전법사 연수교육

5월 20일 법륜사 대불보전서
상진 스님 "넓은 세상을 보길"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전국 스님과 전법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시행했다.

태고종은 5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2025 전국 승려·전법사 연수 교육'을 개최했다.〈사진〉

교육에 앞서 진행된 입재식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과 교육 참석 스님, 전법사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 많은 스님들이 종단의 연수교육에 참여해 감사하다"면서 "우리 종단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많은데 눈에 잘 띄질 않는다. 능력있는 인재들이 총무원에서 실력발휘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에서는 설계를 열심히 할 것이고, 집은 종도 여러분들이 지어가길 바란다"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상을 넓게 보는 종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재홍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종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연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더 알차고 보람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태고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종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사찰보험전문가 정재호 인카금융서비스 지점장이 사찰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가 '사찰의 미래적 활용 방안'을 강의했다. 이어 장선영 행사 전문 아나운서가 사찰 행사 진행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신중일 기자



